

제2공항 새 국면... 제주도 "정상 추진"

원 지사 "국책사업 찬반 숫자보다 내용이 중요"
"전문가 자문 얻어 결정... 10일 국토부에 전달"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배제로 갈등 심화 우려 제기

제2공항 전체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제주도가 정상 추진으로 입장을 정리해 지역 사회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달지 않고 정부만 바라봤던 제주도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공식 의견을 내놨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도청 백록홀에서 제2공항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25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달라고 요구한 지 13일 만이다. 원 지사는 "도지사로서 제2공항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전문가 자문을 얻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가장 큰 특징은 공항 인근 지역은 압도적으로 찬성한 반면, 공항에서 먼 지역은 반대가 우세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제2공항 접근성 등에 대한 염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원 지사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환경 관리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원 지사는 이런 문제와 우려들은 국가의 투자와 대안 마련으로 보완·개선할 수 있다며 제2공항 건설을 무산시킬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원 지사는 제2공항이 무산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안으로 제시되는 제주공항 확충은 고려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제주공항 포화로 도민·여행객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 제주공항이)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확충하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바다 쪽으로 공항을 넓혀야 해 더 큰 환경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원 지사는 도민 여론조사는 참고용일 뿐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제2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찬반 숫자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며 "여론조사는 제2공항(행정) 절차 등을 완료하기 위해 한 가지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이든 무산이든 결정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작성한 듯 국토부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미 여론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는데, 공문으로 제주의 입장을 요구한 건 책임을 도정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와 국토부가 여론조사 뒤에 숨고 있다. 당당히(추진 여부)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직접 가덕도를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제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제주도가 제2공항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지만 그 사이 지역 사회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제2공항 찬성·반대 단체와 각 정당 별로 입장이 갈려 정상 추진과 백지화 요구가 맞서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회원사가 두개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전체 도민의 경우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각각 7.7%p와 2.9%p(오차범위 이내)씩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대상 조사에선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0일 도청 백록홀에서 제2공항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데이터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에 제주TP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수행 기관 공모에서 제주테크노파크가 선정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1인 기업, 스타트업 기업(혁신형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을 상대로 바우처(정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한다는 내용의 지급 보증서)를 지급해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앞으로 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등에게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급 기관 역할을 맡는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규모가 영세한 기업은 맞춤형 데이터를 구매할 엄두도 못냈지만 이번 지원 사업으로 상당 부분 부담이 줄었다"며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제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50% 4264명 접종 완료... 중증 이상반응은 없어

제주지역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절반이 접종을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8434명 중 4264명이 접종을 완료해 50.6%의 접종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2157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1221명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감염병전담병원 3곳) 1809명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69곳) 3247명 등 총 8434명이다.

이 중 요양병원(9곳) 접종률이 87.6%로 가장 높다. 접종대상 860명 중 753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접종이 이뤄진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다. 99명이 접종 후 두통, 쇠약감, 발열 등의 일시적인 경증 반응을 보였으나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대상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및 정신의료기관(12곳)

이상민기자

제주 화장품산업에 디지털 신기술 입힌다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 플랫폼 구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에 '제주화장품 원료 소재 개방 플랫폼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혁신 플랫폼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데이터·자원 등을 민간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공모에 '제주화장품 원료 소재 개방 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15억원을 전액 지원받아 올해 12월 말까지 플랫폼 구축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화장품 자원 정보의 개방·연계·융합을 통한 신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 화장품 원료 소재 개방 플랫폼은 제주 화장품 소재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제공하고 맞춤형 화장품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사업이다. 제주 화장품의 원료·소재·완제품

의 단계별 이력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고 제주 화장품 인증 절차를 정보화하며, 안정성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공공 생산시설 등의 인프라 공유를 통해 화장품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제조 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 화장품 데이터 공유를 통해 레시피 추천, 소비자 자와 조제관리사의 연결 서비스 등으로 화장품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플랫폼 구축 후 도내·외 다양한 화장품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올해 4-5월중 입찰 공고로 시작으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경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구축된 플랫폼은 누구나 활용 가능하며 화장품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의 진솔한 삶 속에 함께하는 정겨운 신문,
늘 깨어있는 시대감각으로 제주 언론의 중심으로 우뚝 선
창간 32주년을 축하하며 변함없이 독자와 제주도민의 사랑과
관심속에 더 크게 성장해가길 기대합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광고기획 / 행사기획
현수막, 실사출력, 배너, LED채널간판
옥외광고물, 간판, 각종사인물제작시공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시대, 행사부스, 집기 제작
CI, BI, 패키지



디자인솔루션
아이엔지 기획

제주시 오일장 서길 40번지(오일장 내)
T. 064-724-7177 F. 064-724-7178

